



공지

**6/30(일)**

시우, 지호 9:30~17:30  
(점심시간 1시간, 촬영 시간은 변동가능)

\*\* 6/19~22일 촬영 미팅이 있을 수 있으니  
메일 내 19,20,21,22일 중 참여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적어주세요.(미팅 장소: 성북구 정릉동)

조연A 13:00~17:30(변동가능)  
조연B,C 14:00~17:30(변동가능)

**location : 서울시 금천구**

**페이**

시우, 지호(주연) - 13만원  
조연A(대사) - 7만원  
조연B,C - 5만원



## 01 한라산 비누

: 제주도 어디에서나 보이는, 제주도의 랜드마크  
비누의 냄새를 맡으면 제주도의 기억이  
새록새록 다시 생각납니다!

늦은 점심, 6살 어린아이들이 있는 미술학원 안. 몇몇의 어린아이들이 스케치북을 펼쳐 놓고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모두 집중해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그림 그리기보다 좋아하는 여학생 쳐다보기에 바쁜 주인공, 시우가 있다. 보다 못해 '너 왜 나 쳐다봐!'하고 찌렁찌렁하게 면박을 주는 지호. 서슬퍼런 지호의 기색에 당황해 내뱉은 말이, 고작 '너 내 그림 따라그렸지'다. 제주도에 가본적도 없다는 말로 지호의 심기를 건드린 시우는 지호와 나란히 생각의자에 앉게 되고, 안절부절 못하며 지호의 눈치를 본다.

다음날, 찬바람이 뽕 부는 지호의 눈치를 보던 시우는, 몰래 집에서 가져온 한라산 비누를 지호에게 건내고 건내받은 비누가 제법 지호의 마음에 든 탓에 자연스럽게 화해하게 된다.

뭐하냐고 기웃거리던 친구의 말에 화들짝 놀라 알거 없어! 라고 외치는 둘. 결국 오늘도 끝은 생각의자다.

# 캐릭터 바이오그래피

1 편 \_한라산 비누

## 이시우, (6살, 희연의 아들)


2편에 등장하는 희연의 아들.  
이제 막 자기주장이 생겨 떼를 쓰기 시작했으며,  
이때문에 엄마에게 자주 혼이 난다.  
형제 자매가 없어 친구들과 노는 것을 유달리  
좋아하며, 그중에서도 같은 미술학원에 다니는  
학원 친구 지호를 가장 좋아한다.

지호와 같이 놀고 싶기는한데, 자주 아웅다웅하며  
싸우는 바람에 나름대로 속앓이를 하는 중.  
자주 싸우는데 반해 싸울때마다 은근슬쩍 다가가는  
불임성있는 성격덕분에 늘 잘 화해하고 지낸다.



## 박지호, (6살, 시우 친구)

시우가 첫눈에 반한 미술학원 친구.  
아직 시우가 자신을 좋아하는 건 모르는 듯 하다.  
어디서나 똑부러지며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지만,  
애살있게 다가오는 시우를 쳐내지 못하고  
자주 어울리는 등 은근히 무른 구석도 있다.  
바쁜 부모님 탓에 아직 제대로 된 여행을  
다녀와본 적이 없으며 내색은 하지 않지만  
내심 휴가철마다 가족과 여행다니는 시우를 부러워한다.

 **kalpee81@gmail.com**

메일 제목 : (필름메이커스\_희망하는 역할\_촬영일 참여 가능 여부)  
지정된 제목 외 메일은 받지 않습니다

ex. 필름메이커스\_조연A\_6/30\_O